

조선시대 관청 최대 연못지 나주금성관 보물 지정되나

문화재청 등 보고서 작성 중
3월 내 지정 여부 결정될 듯

문화재청이 조선시대 관청 중 최대 규모
의 연못지가 발견<광주일보 2015년 10월
1·8일자 11면>된 나주 금성관의 보물지정
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
중되고 있다. <관련기사 11면>
1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 위원
들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
보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나주 금성관
현지조사를 마친 뒤 현재 관련 보고서를
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따라 이
르면 오는 3월 내에 관련 위원회에 심의돼
금성관의 보물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
전망되고 있다.
국가보물로 지정될 경우 보수 및 금성관
필요 예산 70%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
각종 복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
대되고 있다.
문화재청이 금성관의 보물 지정 검토에
나선 것은 지난해 9월 발굴 조사를 완료한
금성관내 연못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
려지고 있다. 당시 문화재청장 등 관계자
들은 이례적으로 나주시에 통보하지 않고
비공개 일정으로 연못지·정자터 발굴현장
을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.
나주시는 현재 금성관내 미발굴 지역 및
연못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2차 발굴
조사를 이달 중으로 발주할 예정이다.
나주시 등이 동신대 문화박물관(조사단
장 이정호)에 의뢰해 지난해 1월부터 추진
해온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 나주객
사 금성관 동측부지에서는 건물과 연못의
높이 차를 감안해 쌓은 3단의 계단형 축대
와 함께 축대 아래에서 길이 64m, 너비 20



나주 금성관(위) 동측부지에서 발견된 연못지(점선).

m의 장방형 대형 연못이 발견돼 학계의
관심을 한몸에 받았다.
특히 연못 내부에서는 너비 5m의 방형
기단을 갖춘 정자터가 함께 발굴됐으며 이
와 함께 분청자·백자 등 도자기편과 목
제·철제 등 건축부재, 그리고 지붕 처마를
장식했던 암·수막새 등 다수의 유물이 함
께 출토됐다.
이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객사의 전체

영역을 확인한 데 이어 관청 내부 연못 중
최대급인 장방형 대형 연못과 정자터가 확
인됨에 따라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역사적
연구와 우리나라 전통 조경사 연구에도 획
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.
나주시는 국가사적 제483호 나주목관
아 일대의 문화재 사적구역 95%를 매입하
고 적극적인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을 추진
중이며, 현재까지 금성관 주변정비를 시

작으로 남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조
성에 주력하고 있다.
한편 나주객사 금성관은 다른 객사 건물
과는 달리 팔작(八作)지붕으로 이뤄져 있
으며, 객사 정문인 망화루와 금성관 사이
의 중문이 이중으로 배치돼 있는 등 매우
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역사·건축학적으로
 주목받고 있는 문화재다.
/나주=정철현기자 chjung@

대남전단 살포·무인기 정찰…北 ‘특이한 행동’

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
개에 맞서 남측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하
고 무인기까지 띄워 정찰을 시도하는 등
‘특이한 행동’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.
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
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에는 ‘준전
시상대명령’을 하달하고 군사적 위협 수
위를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이런 행동을 보
이지는 않았다.
군은 북한군이 일단 ‘저강도 도발’을 한
것으로 평가하면서도 ‘고강도 도발’을 기
획하라는 ‘꼼수’일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,
대북 경제·대비태세의 끈을 바짝 조이고
있다.
북한군은 지난 12일 오후와 13일 새벽
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난하고 박근
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대

남 전단을 살포했다. 북한군이 살포한 전
단은 13일 오전 서울과 의정부, 동두천, 파
주, 양평 등지에서 발견됐다.
가로 12cm, 세로 4.5cm 크기의 컬러 용지
에 인쇄된 전단에는 “대북 심리전 방송 재
개하여 북남관계 악화시킨 박근혜 패당 미
친개 잡대 때려잡자!”, “미국은 시대착오
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당장 포기하
라!”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.
북한이 뿌린 대남 전단이 발견된 것은
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
명했다.
북한은 이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부
전선 최전방 1사단 도리산 관측소 전방에
무인기를 띄웠다. 북한 무인기가 식별된
것은 지난해 8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때
이후 처음이다.
/연합뉴스

초고속 인터넷망·방범용 CCTV…

전남도, 섬 정주여건 개선 착수

전남도가 섬 여행 불편 최소화화 섬 주
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.
전남도는 13일 “민선 6기 브랜드시책으
로 ‘가고 싶은 섬’ 가꾸기 사업과는 별도로
섬 여행 불편을 줄이고 섬 인구 유지 및 증
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착수한다”고
밝혔다.
지난해 섬 방문객은 전년도 2배 이상
늘고, 오는 2020년 흑산공항 개항으로 섬
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
있다.
이와 함께 정주여건 미흡으로 섬 주민은
계속 감소하면서 유인도의 무인도화와 함
께 고령화가 심각화 수준이다.
전남도는 섬 주민의 인구 유지를 위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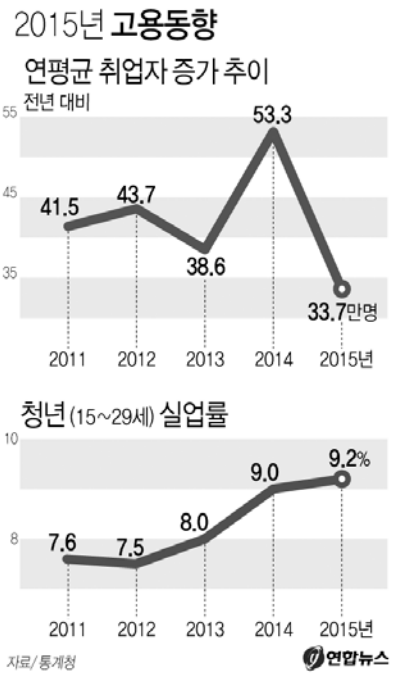
통신, 상·하수도, 에너지, 보건환경 등 부
서별 팀장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분
야별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3
월께 확정할 방침이다.
또 섬 지역에 육지와 같은 보편적 통신
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까지 50세
대 미만 모든 섬 마을(216개)에 초고속 인
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.
휴대전화·난정지역 해소를 위해 섬 난정
지역 정밀조사를 실시, 통신환경을 적극
개선하고, 여행자가 많이 찾는 장소인 선
착장과 전망 좋은 곳 등에 무료 와이파이
지역을 확대한다.
/유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맥의 자녀는 직장 구했습니까? 청년 실업률 9.2% ‘사상 최고’

광주 청년 취업자 7천명 줄고 전남 7천명 늘어

지난해 학업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,
가사 등을 그만둔 청년층(15~29세)이
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청년층 실
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 10명
중 1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갈
수록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.
23일 통계청이 내놓은 ‘2015년 고용
동향’에 따르면 지난해 15~29세 실업
자는 39만 7000명으로 실업률(경제활동
인구 중 실업자 비율)이 9.2%에 달했다.
이는 2014년보다 0.2%포인트 증가한 것
으로 1999년 실업자 분류 기준이 변경
(구직기간 1주→4주)된 이후 최고치다.
전체 실업률은 3.6%로 2011년(3.7%) 이
후 최고치였다.

이처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 이
유는 학업, 시험준비, 가사 등으로 비경
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던 청년층이 직장
을 찾기 위해 경제활동인구로 대거 편입
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실제 지난해
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·수강 인구가
전년에 비해 14 만6000명 줄었고, 가사
인구도 4만5000명 감소했다.
노동시장 바깥(비경제활동인구)에 있
던 청년층이 대거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
서,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도 6만
8000명 늘어난 393만8000명을 기록했
다.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(전체 인구
중 취업자 비율) 역시 2014년 40.7%에
서 지난해 41.4%로 증가했다. 이 역시
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.
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“감소
세인 농업을 제외하면 비농림어업 부문
취업자는 오히려 2013년보다 많은 수
준”이라며 “매르스(중동호흡기증후군)
여파 때문에 작년 2분기에 최저치를 찍
었다가 회복하는 모습”이라고 설명했다.
연령별로는 청년층보다 50~60대 취



업자 증가폭이 컸다. 지난해 15~29세
취업자는 6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
지만 60세 이상은 17만2000명, 50대는
14만9000명 증가했다. 30대와 40대 취
업자는 각각 3만8000명, 1만4000명 줄
었다.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50세
이상 인구가 늘고 40대 이하는 줄어드
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.
한편 지난해 하반기 2%대로 낮아졌
던 광주·전남 지역 실업률은 12월에 다
시 3%로 올라가 전년 12월에 비해 0.6%
포인트 높아졌다. 청년 취업자수는 2만
9000명으로 전년 동기와 변화가 없었다.
광주는 11만7000명에서 11만명으로
7000명 줄었고 전남은 9만2000명에서 9
만9000명으로 7000명 늘었다.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강남 수서~목포 SR고속철 8월 개통

서울 강남 수서역~목포역(부산역)
구간을 운행하는 제 2의 고속열차(SR고
속열차)의 개통시기가 올해 8월로 정해
졌다.
국토교통부는 “올해 하반기로 미룬
수도권고속철도의 개통시기를 8월로
추진하고 있다”고 13일 밝혔다.
국토부는 2013년말 수도권고속철 운
영사인 ㈜SR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
발급하면서 2015년 12월 개통될 예정이
라 발표했지만 연약지반 공사 등으로 인
해 올해 하반기로 개통을 미룬 바 있다.
SR고속철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
새로 지은 동탄역, 지제역을 거쳐 팽태

에서부터 KTX와 고속철 선로를 함께
쓴다. 승객은 코레일 KTX와 SR고속철
가운대 시간·운임·서비스를 비교해 둘
중에 골라 탈 수 있다.
SR고속철은 전용역인 수서역·동탄
역·지제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의 예매·
발권 업무와 차량 정비업무, 시설물 유
지보수 업무, 비상대기와 사고복구 등
안전업무를 모두 코레일에 위탁한다.
SR은 현대로템에서 새로 출고한 SR
고속열차 3편을 현재 기존 고속철 선로
에서 시운전하고 있으며 개통 념 달 전
에는 시설물 점검을, 한 달 전에는 영업
시운전에 나선다. /김형호기자 khh@

당신의 광장/젊음의 광장! **U-square**

수비드[sous-vide] 떡갈비,삼겹살 & 돈까스

아이엘리시아

아이엘리시아

중학생이상	취학어린이(초등학생)	미취학어린이
평일 12,500원	8,500원	5,000원
토·일,공휴일 14,500원	9,000원	5,500원

수비드 삼겹살, 떡갈비,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(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,000원 할인)

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.

예약문의 062)671-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(광천동) 유·스퀘어,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

Special atmosphere

Special taste

아이엘리시아

말하는 법 1%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~!

www.kleader.kr

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!

어머니스피치교실

"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"

아버지 스피치 교실

초·중·고·대학생 등을 위한

학생부 스피치 교육

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**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.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.**

면접준비실전과정

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. 본원에서는 기업체·금융사·임용고시·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**면접준비 실전과정**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.

★ 각 분야별 강사 파견

: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.

☎ 062) 222-2255, HP. 010-9441-7000

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|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.

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.

(금융위원회 99-7호)

세일신용정보(주)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고교연합회, 삼성카드, 신한캐피탈, 한국캐피탈,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.

- 차용증,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
-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
-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
-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
 - 가압류/소송/집행까지
 - 전담 법무사와 Non-stop 서비스
- 민사채권, 물품대금, 공사대금, 미수금 등
-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.
-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, 폐업,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.
-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.

☒ 재산소회비용 **無** ☒ 착수금 **無**

영업사원 모집

대표전화 : 062) 531-5990 010-2069-5958

세일신용정보(주)